

고흥군 ‘관광객 2천만명 프로젝트’ 시동

협약기관 참석 비전 선포식

관광공사와 공동 캠페인

가수 남진씨 홍보대사 위촉

10년계획 20개 과제 추진

고흥군이 ‘관광객 연간 2000만명 방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고흥군은 14일 문화회관에서 관광 협약 기관인 한옥민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사장을 비롯한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투자기업, 국제여행사, 관광·여행·요식업종사자,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관광 2000만시대 도약의 원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매년 관광객 2000만명이 오가는 고흥 관광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K-스마일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비전영상 상영, 국민 가수 남진 명예홍보대사 위촉, 축하 공연 및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중(오른쪽 두번째)고흥군수가 14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고흥관광 2000만명 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남진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박병중 고흥군수는 기념사에서 소록도, 나로우주센터, 음식관광산업 등 고흥만의 특별한 문화관광콘텐츠로 고흥관광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2017년을 고흥관광의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군수는 “이번 선포식은 행정과 군민이 하나 돼 향후 관광홍보와 문화 나눔 등에 대해 동행할 계획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면서 “소록도의 휴머니즘,

금산의 생태관광, 집적화된 우주 관련시설, 고흥군만의 먹거리 등 매력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도록 관광객을 위한 대감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관광으로 도약하는 고흥의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범군민 관광객 맛을 위한 사업 발굴과 관광콘텐츠 개발, 마케팅 강화, 2000만 방문 조성 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한 10개년 목표를 수립했다. 10개년 사업은 2018년 도약기를 거쳐 체류형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마무리되는 2021년을 성장기, 관광상품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2026년까지를 발전기로 설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4대 전략 20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은 특히 2020년까지 총 5개소(1631실)의 체류형 숙박시설을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성(휴머니즘)과 나로우주센터 등 전국 유일무이의 특화된 자원을 관광 상품화해 인근 여수·순천지역의 관광객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까지 총 5개소(1631실)의 체류형 숙박시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소록도의 역사성(휴머니즘)과 나로우주센터 등 전국 유일무이의 특화된 자원을 상품화해 인근 여수·순천지역의 관광객을 흡수시킨다는 방침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경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구례경찰은 “최근 전남자연과학고와 구례중학교 앞에서 구례군,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학생들의 등굣길에 맞춰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새 학기 개학 후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들에

게 청소년 선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을수 구례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여가부 프로그램 공모 선정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7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비누 공예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활동, 봉사활동, 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건강한 자아 존중감 획득, 성취동기 향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20여회 진행되며, 비누공예 제작 및 실습 4회, 판매부스 운영 10회, 봉사활동 10회 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훈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환경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61-363-9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 과수·원예산업 육성 나섰다

생산기반 조성 등 17개 사업 을 80억원 투입

보성군이 올해 과수·원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올렸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대표적인 과채류인 딸기, 토마토, 오이와 참다래, 배 등 고품질 농산물 육성을 위해 기반조성 및 생산기반재 보급 등 17개 사업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군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과채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특히 올해부터 2년간 조성면 일원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입해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에 나서는 한편 참다래 과실생산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또 최근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호박, 작두콩 등 지역 특화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포포

나무, 레드향 등 아열대 과수품목 육성에 9개 사업 21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이 밖에도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47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단위 산지생산·유통 관련기관과 품목별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가를 지역조합·농업법인 등의 산지조직으로 육성해 공동재배·공동선별, 공동출하, 통합마케팅을 통한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원예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많은 농가가 신선과채류인 시설원예와 과수품목으로 주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토마토 농가들이 72ha에서 2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참다래 농가 209ha 100억원, 딸기농가 38ha 87억원, 오이농가 28ha 81억원, 참배농가 121ha 61억원 등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서기동(오른쪽 세번째) 구례군수가 지난 13일 군청에서 한국전력 공사 대표 등과 ‘구례읍 전선·지중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읍내 전신주·통신선 지중화 추진

郡, 한전 등과 협약 체결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읍 봉성로(구례군청~지리산파크) 일원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신주와 통신선 등을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구례읍 봉성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은 구례군청 로터리에서 지리산파크 일원 로터리까지 1.5km 구간에 있는 전선주, 통신선, 가로 등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9억원이다.

구례군은 오는 5월까지 실시계획을 하고, 5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뒤 6월 착공해 2018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요학교 및 집 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들의 보행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공사구간이 구례읍 중심부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보성군 “논에 벼 말고 다른 작물 심으세요”

대체작물 지원 쌀 과잉 해소

보성군이 쌀 생산안정과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소득 작물, 논 대체작물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은 벼를 심은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감자 등 타 작물을 재배하면 경영안정대책비 및 변동직불금 등 벼 재배와 관련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소득보전차원에서 m당 300원을 지급하고, 최대 5ha,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메밀단지와 잡곡단지 등 집단재

배단지 위주로 지원해 농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와 연계해 조사료용 옥수수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하계조사료 수급 안정도 함께 추진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윤부 보성군수는 “쌀 수급안정은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과제”라면서 “논 타 작물 재배와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한 다양한 쌀 생산 안정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월부터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대지 22평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902,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

대지 51평
건물 60평
최저가 210,000,000
감정가 300,000,000

남구 주월동 근린시설

대지 50평
건물 28평
최저가 99,000,000
감정가 14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3,151,000,000
감정가 4,501,000,000

나주 보산동 근린시설

대지 437평
건물 91평
최저가 212,000,000
감정가 302,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음)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적 6,000만원 분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분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